

#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23년 10월 31일 KOSPI 2,300p 이탈에 대한 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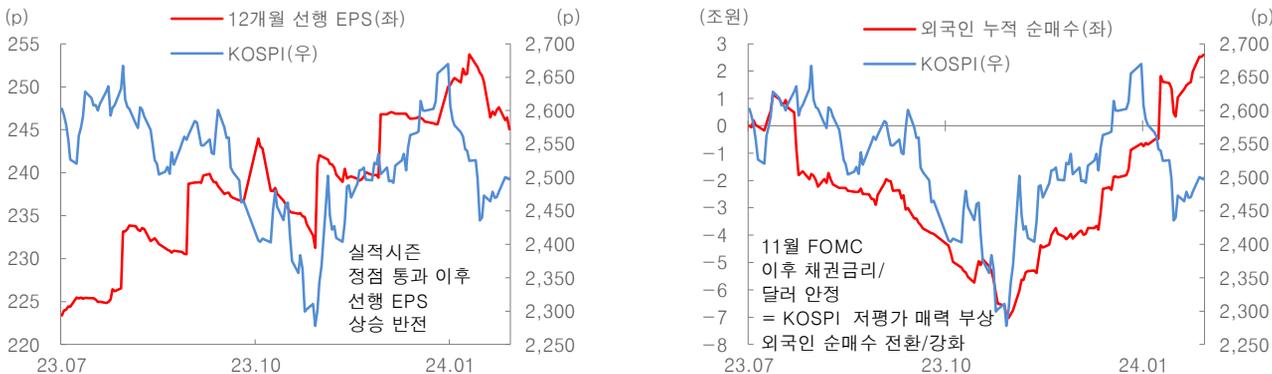
- KOSPI 24년 10월 -1.43%, 2년 연속 10월 약세, 3개월 연속 하락
- 23년 10/31 KOSPI 저점 이후 급반전. 실적 안정, FOMC, 채권금리/달러 하락
- KOSPI 미국 대선 이후 FOMC, 중국 전인대 상무위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 예상

24년 10월 KOSPI는 -1.43%로 마감했다. 2년 연속 10월 약세이자, 2년 연속 3개월 연속 하락 마감이다. 최근 시장 흐름은 23년 10월말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실적 불안, 채권금리/달러화 급반등, 외국인 대량 매도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KOSPI는 26일 단숨에 2,300을 위협했고, 31일 장대 음봉으로 2,273.97p로 장을 마쳤다. 중요 지지선이었던 2,400p, 2,300p가 단기간에 무너지며 시장 전반에 비관론이 팽배했다. 이 과정에서 KOSPI는 23년 8월 1일 고점대비 14.59%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4.94조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12개월 선행 EPS는 9월초 이후 3.11% 하향조정되었다.

KOSPI는 10월 31일을 저점으로 반등에 나섰다. 11월 1일 곧바로 2,300선을 회복했고, 두달 동안 거침없는 상승세로 24년 1월 2일 2,669.81p로 레벨업되었다. 두 달만에 17.2% (391p) 수익률을 기록, 독보적인 글로벌 1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분위기 반전의 시작은 덜 매파적이었던 11월 FOMC(11월 1일) 결과와 한국 수출 개선이었다. 이를 계기로 낙폭과대, 저평가 인식이 강해졌고, 이후 채권금리 하락, 실적 안정, 공매도 금지, 24년 실적 기대, 연말 외국인 선물/프로그램 매수 등이 가세하면서 KOSPI 상승에 힘이 실렸다.

24년 10월 31일 KOSPI는 7월 11일 고점대비 11.59%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17.4조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12개월 선행 EPS는 9월초 이후 4.3% 하향조정되었다. 실적 하향조정 폭과 외국인 매도 규모는 24년 KOSPI가 큰데 반해 조정 폭은 덜한 상황이다. 선행 PER은 8.58배로 23년 10월 31일 9.85배보다 낮다. 과열 양상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도 Cool-Down 중이다. 24년 11월 5일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11월 8일 FOMC 회의를 통해 금리인하 사이클을 재확인하고, 4일 ~ 8일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회복 기대가 되살아난다면 분위기 반전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금리와 원/달러 환율 하향안정과 함께 KOSPI 실적 전망 안정국면 진입, 연말 수급 계절성(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이 남은 2024년 KOSPI 레벨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23년 10월 31일 KOSPI 저점 이후 분위기 급반전. 실적 불안 진정, 채권금리/달러 안정 = 외국인 순매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